

고려인마을 음식문화거리 '맛깔스럽게' 바꾼다

광산구, 관광객 다시 찾는 중앙아시아 역사테마 관광지구 조성 '동구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침체 교훈 삼아 특색있는 거리 돼야

광주시 광산구가 고려인마을을 중심으로 먹거리 문화 활성화에 나선다. 급증하는 고려인 마을 방문객이 중앙아시아 음식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중앙아시아 역사테마 관광지구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19일 광산구에 따르면 구는 고려인마을 특화거리와 세계음식문화거리 일대 요식업체를 대상으로 요식업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광산구는 고려인마을 일대에 세계음식문화거리를 조성하고 조형물을 세웠지만 활성화되지 못했다. 광산구는 중앙아시아 음식과 언어가 친숙하지 않아 재방문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광산구는 '중앙아시아 역사테마 관광지구 조성' 사업을 구상해 '스토리가 있는 고려인마을'이 야기 관광코스'를 만들어 재활성화에 나선다는 계

획이다. 고려인마을 방문객을 음식으로 사로잡아 재방문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고려인마을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인근에 산업단지가 있어 캄보디아와 베트남, 중국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무리지어 살고 있다. 자연스레 이주민 거주마을이 생생대 각자 나라 전통 식당이나 식료품점 등이 문을 열었고 '그들만의 터전'이 조성됐다. 올해 11월 기준 월곡2동 요식업체는 280여개이고 이중 외국인이 운영하는 가게는 30여개다. 광산구는 먼저 식당에 대한 교육에 나선다. 각 국가 언어로만 쓰여있어 한국인 방문객이 이용하기 힘들었던 메뉴판을 바꾸고 SNS를 통해 찾아올 수 있도록 판매 마케팅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

다. 포장재부터 키오스크 설치, 테이블링 방법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한국 가게의 형태를 갖춘 수 있도록 돕는다. 광산구 외국인주민과 관계자는 "광산구에 있는 다양한 나라가 가진 고유한 맛과 냄새 등 문화를 알리고 거주지역 일대 활성화를 통해 외국인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해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11년 전 광주시 동구에 조성된 '아시아음식문화거리'가 침체돼 있는 상태에서 유사한 아시아 음식 거리가 만들어 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아시아 음식문화거리는 동구가 2013년 문화전당로 일대에 145억을 들여 조성했다. 하지만, 아시아 음식이 아닌 술집과 노래방 등이 들어서면서 특색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동구가 설치한 아시아음식문화지구 핫플레이스 표지판을 보면 아시아음식문화거리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28개의 식당 중 한국 식당이 18곳에 달한다. 문창현 광주 동구문화관광재단 대표는 "광산구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일대에 조성된 세계음식문화거리 전경. <광주시 광산구 제공>

는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고려인마을이라는 장소적 역사 등 문화적 배경이 잘 마련돼 있기 때문에 장소성을 두고 보면 세계음식 테마거리 조성에 있어 손색이 없다"면서 "음식을 주제로 한 거리가 활성화되려면 재방문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재방문을 위해선 맛이 있어야 한다. 인도의 커리가 한국의 카레로 성공했듯이 정통성도 좋지만 우리 음식과의 콜라보를 통해 거리를 찾을만한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판사님, 고려인마을엔 무슨 일로 가셨어요?

광주지법, 새날학교 등서 '찾아가는 법원' 행사... 고려인 애로사항 등 청취

박병태 광주지방법원장과 판사들이 찾은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에 웃음꽃이 활짝 폈다. 광주지법 관계자들이 고려인 동포에게 한국 사법제도를 안내하고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법원' 행사와 후원 활동 등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19일 고려인마을에 따르면 박 지법원장을 비롯한 광주지법 관계자 14명은 전남 고려인마을을 찾아 격려금과 아동들을 위한 치킨, 쌀 20포대 등을 전달했다. 박 지법원장은 고려인마을 주민들과 함께 중앙아시아 음식을 먹으며 이주 동포들의 삶과 애환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주민 박실바(73)씨는 박 지법원장에게 "한국과 광주는 아주 고려인들의 고향이다. 우즈베키스탄에 가도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주민들의 가장 큰 고민은 한국 국적 취득이다. 전쟁을 피해서 온 우크라이나 출신 고려인들을 포함해 대부분이 언제 비자가 만료돼 한국을 떠나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산다"고 호소했다. 신조아 고려인마을 대표도 "이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한국 문화, 한국어밖에 모르는데도 한국 국적이 없어 외국인 취급을 받는다. 직장을 다니는 이들 역시 일을 할 때 차별 대우를 받기 일쑤"라고 덧붙였다. 박 지법원장은 "한국과 광주의 인구 감소 문제



광주시 광산구 삼도동 새날학교에서 지난 8일 광주지방법원의 '찾아가는 법원' 행사가 열려 학생들이 김준환(가운데) 판사와 법복을 입어보는 체험을 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제공>

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우리 지역에 정착해 살아가고 있는 고려인들의 한국 국적 취득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본다"며 "법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고 항상 관심을 갖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김준환 광주지법 기획 판사 등은 지난 8일 광산구 삼도동 새날학교를 찾아 '찾아가는 법원' 행사를 진행했다. 새날학교는 고려인 마을을 자녀 등 다문화 청소년들이 재학 중인 대안

학교다. 김준환 광주지법 기획 판사 등은 학생 50여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한국의 사법제도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광주지법은 사회적 약자인 고려인들과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지원하고 사법 서비스 소외 지역을 살피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매년 고려인마을을 방문하고 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전남대병원도 중증 진료 늘리고 일반병상 줄인다

복지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11곳 추가 선정

전남대학교병원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지역에서는 조선대학교병원에 이어 두번째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4차 참여기관으로 전남대병원을 포함 총 11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선정된 병원엔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동아대병원, 삼성강원병원, 서울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등이다. 이로써 이날 선정된 11곳을 포함, 국내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89.3%인 42개 기관이 구조전환에

착수하게 됐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은 의료 개혁의 일환으로, 의료전달체계 최상위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이 본래 역할에 맞게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게 구조를 재편하는 사업이다. 참여 병원은 중증 진료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고 일반병상은 최대 15%가량 줄인다. 전남대병원의 경우 일반병상을 874개에서 839개로 35개 감축한다. 복지부는 아직 참여하지 않은 상급종합병원 5곳에 대해서도 추가 신청 상황을 보면서 선정 심사할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여대 '남녀공학 전환 없다' 공식 표명

광주여대에서 외국인 남학생 정원확대를 두고 "남녀공학 전환의 전 단계를 밟고 있다"며 일부 학생들의 반발(11월 13일자 광주일보 7면)이 이어지자 광주여대가 '남녀공학 전환 의사가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19일 광주여대는 입장문을 통해 "광주여대 학칙 제1조 목적(여성전문인 양성)에 따라 일반학과는 여학생만 입학할 수 있으며 우리 대학은 남녀공학 대학으로 전환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광주여대는 외국인 유학생이 입학하는 국제학부와 성인학습자 입학 학과인 미래융합학부의 남학생들을 늘리겠다는 내용으로 학칙을 바꿔 일부 학생이 학과 점퍼와 전공서적을 중앙계단에 비

치하고 근조화환을 학내에 설치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광주여대는 "재학생 대상 설문조사 뿐 아니라 총학생회 의견수렴, 재학생 대상 설명회, 찾아가는 학교 설명회 24회, 학칙개정 대학평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일부에 한해 남학생 입학 허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여대의 교육 목적은 여성 전문인 양성에 있고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은 대학의 교육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전체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주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학교)



총장
김경운 박사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단위		모집인원	
	학 과	수 시	정 시	
인문사회	신 학 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사범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유아교육과	8	2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심용음악학 전공)	21	8	
	총 계	84	21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전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4. 12. 31.(화) ~ 2025. 1. 3.(금)

· 전형일: 2025. 1. 13.(월)

“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




www.kwangshin.ac.kr